

## 실천가 중심으로 본 영국의 상담 활동\*

김 광 은  
공군사관학교

본 연구는 영국의 상담 활동을 현장에서 상담을 제공하는 실천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이러한 개관은 크게 네 가지 측면-영국 상담의 발달 과정 및 특징, 훈련 기관 및 과정, 상담 전문가 자격, 주요 상담 장면 및 활동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첫번째 장은 상담과 심리치료의 역사적 관계와 상담과 상담심리학을 대표하는 단체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다루어졌으며, 두번째 장에서는 상담 훈련을 위한 과정을 기초, 고급, 전문 수준별로 소개하고 영국 상담협회에서 공인하는 훈련기관의 기준을 살펴보았다. 세번째 장에서는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영국 상담협회의 전문가 기준과 영국 심리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심리학자의 기준을 소개하였으며 마지막 장에서는 영국 내에서 상담이 주로 실시되고 있는 다섯 분야, 즉 상담 단체, 교육 기관, 사설 개업, 의료 및 직장 영역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 발달과정 및 특징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 관련 활동을 간략하게 소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느 나라의 상담 발달 과정을 보더라도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나 특히 영국에서는 상담과 심리치료의 역사를 명쾌하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고 실천으로서의 상담과 학문으로서의 상담심리학 간에는 상당한 거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영국 상담활동의 모태가 되는 사건

을 1950년대 전국 결혼 상담실(The National Marriage Guidance Council)에서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조력 활동을 보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일정한 훈련을 거친 자원 봉사자들에 의해 제공된 것이다(Proctor, 1993). 한편 미국에서 시작되고 발전된 상담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영국에 도입된 것은 1960년대 중반 카운슬러 양성을 위한 상담 훈련 프로그램이 대학 장면에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Woolfe, Charles-Edwards, & Dryden, 1989).

\* 이 글은 영국문화원의 후원으로 1994년 9월부터 1995년 6월까지 방문 연구원(visiting scholar)의 자격으로 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of London에서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이다.

이와 같이 영국에서 상담 활동이 본격화된 것은 최근 30년간의 일이지만 상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리 치료 면에서 본다면 이 분야의 역사는 상당히 전통이 있다. 즉 1913년에 영국 정신분석협회(The British Psycho-Analytical Society)가 성립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듯이 정신분석을 비롯한 다양한 심리치료 이론이나 이를 위한 훈련 과정은 상대적으로 상담에 비해 체계가 잡혀 있는 편이고 이러한 까닭에 여전히 상담의 많은 부분은 그 독자적인 정체를 확보하고 있기 보다는 심리치료에 의존하고 있다.

영국내 상담 발달 과정에서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현장의 경험이 강조된 실천적 의미의 상담과 심리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 학문으로서의 상담심리학과와의 관계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상담의 실천적이고 응용적인 성격상 그 활동이 먼저 있고 이를 학문적으로 규정짓거나 발전시키는 학문이 등장하기 마련이지만 영국에서는 이 두 분야의 간격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실천으로서의 상담과 학문으로서의 상담심리학을 대표하는 두 단체의 역사나 활동, 성격등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

먼저 영국 상담협회(BAC : British Association for Counselling)는 그 규모나 활동면에서 영국의 상담 활동을 대변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체로 1977년에 설립되었으며 (Woolfe et al., 1989) 95년 현재 약 4,000명의 개인 회원과 500여명의 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BAC, 1995a). 이 협회의 특징은 그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담 전문가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상담과 관련된 여러 활동을 지원하고 대

표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그 구성원도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 뿐 아니라 일차적인 업무가 상담은 아니지만 각각의 현장에서 상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로 하고 있는 인력(예 : 교사, 목사, 간호사, 보호감찰관 등), 그리고 영국내의 제도적인 상담의 도입 이전에 오랜 전통을 가진 자원 봉사를 통한 조력 인력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반면 영국 심리학회(BPS :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산하 상담심리학은 1982년 심리학회로부터 독립적인 활동 영역의 하나로 인정을 받은 이후 1994년 3월에 응용심리학의 하나로 상담심리학자의 자격을 관장하는 분과를 출범시켰다. 심리학회에서 임상, 교육, 직업, 법, 상담과 같은 응용심리학 분야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 심리학자(chartered psychologist)의 타이틀에 특수 분야를 명기(예 : Chartered Counselling Psychologist)할 수 있는 자격을 관장한다. 1995년 현재 심리학회 산하 상담심리학 분과에는 약 1000여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다(Wilson, 1995). 이 분과의 회원은 대학에서 응용심리학을 전공하고 있거나 이수한 사람으로 심리학 지식에 기반을 둔 상담에 관한 연구와 실천에 관심을 두고 있다. 상담심리학 분과는 회원의 수나 출발 시기 등으로 볼 때 아직은 상담협회에 비해 영국의 상담계에 끼치는 영향이 적은 편이다.

현재 두 단체는 서로 갈등하는 관계라기 보다는 영국내 상담의 발전을 위해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협동적인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왜냐하면 상담협회는 전문가 뿐 아니라 비전문가나 상담 기술을 활용하는 모든 관련 인력을 포괄하고 있어 상담의 층을 넓히

는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면, 상담심리학 분과는 임상심리학과는 구별될 수 있는 상담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그 목표나 교과 내용, 전문적인 자격 기준 등에 좀더 관심함으로써 학문으로서의 상담의 질이나 수준을 높이는 전문화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상담과 심리치료, 상담과 상담심리학과의 관계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영국 상담의 일관된 특징은 현장 중심의 경험과 기술을 강조하는 실천가 모델이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학위나 자격증보다는 현장 경험을 중시하는 영국 문화의 전반적인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임상 장면에서의 오랜 심리치료 전통이 이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상담 영역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상담협회의 조사 결과에서와 같이 전 회원의 상당한 비율이 자원 봉사의 차원에서 상담을 제공하는 현실(1989년 전 회원의 47%, 1993년 전회원의 37%가 무보수로 상담 제공: BAC, 1989과 1993)도 전문적인 자격보다는 현장 경험을 강조하는 원인의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상담학 자체에 대한 연구나 이 분야의 학문적 정립은 미국에 비해 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 실제 영국의 상담계를 이끌고 있는 인물 중의 하나인 Woolfe는 영국 심리학회의 공식 잡지인 *The Psychologist*의 상담 특집편에서 영국의 상담심리학을 아직 토대가 굳건하지 않은 '신생아기'에 비유한 바 있다(Woolfe, 1990). 이를 반영하는 좋은 예로 영국에서 발행되는 상담 관련 분야의 전문 잡지는 *Counselling Review*, *Counselling Quarterly*, *Couns-*

*elling* 등으로 많지 않으며(Bolger, 1989), 일반적으로 연구 과정으로 인정되는 석사 수준의 강좌를 제공하는 대학은 약 스무 군데로서 이 중 Keele, Durham, Wales, City, Regent 등의 다섯개 대학만이 상담과 심리치료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BAC, 1995b).

이와 같이 현장의 요구나 경험이 강조되는 영국 상담 활동의 또 다른 특징은 심리 교육의 측면에서 상담 기술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이 다양한 장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는 상담과 같은 복지나 서비스 영역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고 전문 상담가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인간관계를 활성화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의 하나로 상담 기술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Mclaughlin, 1993)

이는 실천적인 상담을 주도하고 있는 상담협회의 하위 분과가 갖고 있는 성격에서도 잘 반영되고 있는데 7개의 하위 분과 중 비교적 전문 상담가로 이루어진 학생 상담협회(Association for Student Counselling)를 제외한 나머지 분과는 회원의 대다수가 주 보직은 다른 일이지만 상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로 하고 있는 집단이거나 자원 봉사의 차원에서 일련의 상담 기술 훈련을 거쳐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대중적인 교육이나 훈련의 역할 통해 현재 영국의 상담은 심리치료와는 그 적용 장면이나 기여도 면에서 구별되는 상담 활동 나름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 참고로 상담협회의 다른 분과들은 직장 상담협회(Association for Counselling at Work), 교구 관리와 상담을 위한 협회(Association for Pastoral Care & Counselling), 교육장면의 상담(Counselling in

Education), 개인/성/인간 관계/가족 상담(Personal / Sexual / Relationship / Family Counselling), 인간과 문화 교육 상담(Race & Cultural Education in Counselling)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복합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영국의 상담 활동을 주로 상담 훈련 과정 및 전문가 자격, 주요 상담 활동 장면 및 영역 등에 초점을 두어 살펴 보고자 한다.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제한과 연구자의 짧은 영국에서의 연구 경험 탓으로 포괄적인 소개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미국에 비해 영국의 상담활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알려진 바가 적으므로 이러한 개괄적인 소개는 실천가로서의 상담자 역할에 관심있는 동학들에게 하나의 비교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훈련 과정 및 기관

영국의 상담 훈련을 위한 과정은 그 목적이나 수준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이를 개관해 볼 수 있는 자료로 가장 유용한 것은 매년 영국 상담협회에서 발행하는 상담과 심리치료 훈련을 위한 기관 명부이다. 이 명부는 상담협회에서 인정하는 기관뿐 아니라 영국 심리치료국(United Kingdom Council for Psychotherapy)의 회원 단체를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이나 심리치료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sup>1)</sup>이다.

1995년 제11판(BAC, 1995b)에는 상담과 심리치료 훈련을 위한 총 450여개의 기관이 소개되고 있는데 각 기관의 형식이나 과정은 실로 다양하다. 즉 10시간 미만의 맛보기 과정부터 최소 3년 내지 5년을 요구하는 과정까지 소개되어 있고 기관의 성격이나 비용면에서도 지역 관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평생 교육 강좌부터 의과 대학 수준에 맞는 학비를 요구하는 정규 대학의 박사 과정까지가 총 망라되어 있다.

이 과정들은 크게 수준별로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가장 초보적인 단계는 100시간 미만의 강좌로 주로 상담 기술에 관한 훈련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상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초보자를 위한 강좌로 등록시 교육 수준이나 배경은 고려되지 않으며 강좌의 주목적도 개인의 이해나 대인관계에서 상담 기술을 활용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강좌를 제공하는 기관은 주로 지역 관청이나 상담 센터, 성인 교육 기관 등이다. 그러나 전 훈련 기관의 47%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때 대중 교육의 차원에서 상담 기술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두번째는 본격적인 상담 훈련을 위한 과정으로 상담 전문 훈련 기관이나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다. 보통 학위 과정이 아닌 디플로마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1년의 풀타임 등록이나 2년에서 3년의 파트 타임의 등록이 가능하다. 디플로마 과정은 훈련 기관에 따라 관련 분야(예

1) 훈련 기관에 관심있는 사람은 영국 상담협회(BAC, 1 Regent Place, Rugby, Warwickshire CV21 2PJ, U.K.)나 연구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심리학, 교육학, 사회사업학, 의학)의 학사 학위를 요구하기도 하나 대부분 학부 전공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번째 단계는 상담 전문가를 위한 과정으로 연구 과정과 실천가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 과정은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나 디플로마 자격증을 요구하며 석사부터 박사 과정까지가 포함되어 있다. 공식적으로는 3년에서 4년의 기간이 요구되나 이는 개인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라 할 수 있다. 실천가를 위한 과정은 집중적인 지도 감독이나 개인의 발달을 위한 과정으로 그 기간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고 보통 지도감독자와의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 과정은 전문 상담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도 제한되어 있으며 공식적인 학위나 자격증 이외에 다년간의 현장 경험을 필수로 요구한다.

참고로 상담협회에 등록된 개인 회원의 훈련 및 교육 배경을 보면(BAC, 1993) 전 회원의 63%가 대학 졸업자로 이중 26%는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27%는 디플로마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다. 나머지 비율 중 6%는 상담 협회가 인정한 기관을 다니고 있거나 대학 재학 중이었다(19%). 이들은 대부분 파트 타임으로 훈련을 받았으며(86%) 파트 타임의 경우 훈련에 들인 시간은 평균 2.5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훈련 기관의 이론적 지향을 간접적으로 알아 볼 수 있는 자료로 상담 협회의 개인 및 단체 회원들의 이론적 경향을 보면(BAC, 1993) 개인 회원의 경우 한 가지 이론만 고집한다는 경우가 26%이고 두 세개의 대안을 절충한다는 입장이 42%였다. 이중 전 개인 회

원이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심리 역동 이론이었으며(60%) 다음이 인간 중심(57%), 절충적(32%), TA(24%), 인지나 인지 행동(19%)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단체 회원의 경우는 평균 3개의 이론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단체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심리역동(74%)이었고, 다음이 인간 중심(64%), 절충적(42%)의 순으로 선호되었다.

이 조사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영국의 대부분의 훈련 기관은 커다란 세 조류, 즉 정신 분석, 인본주의, 인지나 인지 행동주의에 입각한 훈련을 제공하며 이 조류에서 파생한 다양한 접근들, 예를 들면 아들리안 학파나 음악학파에 입각한 정신 분석, 클라인의 아동 심리 치료, 교류 분석, 현실 치료, 게슈탈트, 가족 치료, 통합 치료 들도 찾아 볼 수 있다. 이외에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이 활발하지 않거나 생소한 춤을 통한 치료(Dance Movement Therapy), 예술 치료(Art Therapy), 신경언어학적 프로그램(Neuro-Linguistic Programming)들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중의 하나이다.

이상과 같은 훈련 기관 중에서 상담협회에서는 1988년부터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기관을 공식 훈련 기관으로 인정하여 전문적인 카운슬러를 희망하는 지원자들에게 훈련 기관 선택시 도움을 주고 있다. 공식 훈련 기관이 되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즉 각 과정이 여덟가지 기본 요소인 입학 자격, 전문가 자질 개발, 내담자와의 작업, 지도 감독, 기술 훈련, 이론, 전문가로서의 자질 개발과 평가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이에 덧붙여 핵심적인 바탕 이론 및 이에 입각한 이론과 기술간에 균형을 취하고 있어야 하고 실

천가로서 개인적 발달과 반성의 기회 제공 및 최소 2명의 전담 훈련 요원이 배치되어 있을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과정들은 대부분 파트 타임의 디플로마 과정으로 보통 2년에서 3년 기간 동안 최소 400시간의 강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론과 기술의 비율은 약 50대 50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4년까지 협회에서 이 조건에 부합한다고 인정한 기관은 총 25군대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인 기관에서 훈련을 마쳤다고 해서 상담 협회에서 인정하는 상담 전문가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담협회는 공식 기관 이외에서의 훈련 경험도 전문가 자격을 위한 기초 과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상담가 훈련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초 훈련을 바탕으로 한 현장 경험으로 이 기간 동안 반드시 정기적으로 최소 3년 이상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심리학회 산하 상담심리학 분과에서는 심리학 내에 새로운 상담심리학 디플로마 과정을 도입할 것을 1992년에 통과 시켰다(Sherrad, 1993). 이 과정과 상담 협회의 공식 승인 기관의 훈련 내용과의 큰 차이는 없으나 상담 심리학 디플로마 과정은 관련되는 분야의 연구 수행 능력을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 과정을 이수한 경우 자동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 카운슬러(Charted Counselling Counsellor)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Willson, 1995)

간략히 살펴본 대로 영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를 위한 훈련 과정 및 기관은 그 수준이나 프로그램 내용면에서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영국에서 상담이나 심리치료 분야에 훈련을 원하는 사람은 우선 자신의 이론적 지향이나 관심있는 상담 접근을 정하고 이룩하고자 하는 성취 수준을 설정한 후 훈련 기관들을 탐색해 나가면 그 선택의 폭을 좁혀가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 상담 전문가 자격

상담 전문가 자격 인정과 관련된 주제는 영국내 상담 활동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아직 상담과 심리치료 분야의 개업을 위한 법적 제한이 없으므로 이러한 자격 인정 제도가 커다란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또한 아직 상담협회나 상담심리학 분과에서 동시에 인정하는 단일 자격 제도가 없다는 점과 이러한 전문적인 자격 승인 제도가 영국내 상담 인력의 다수를 차지하고 오랜 전통을 가진 자원 봉사자들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미 경험적으로 전문 상담가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일부 개업가의 경우에는 이 과정 자체가 번거로운 절차일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여전히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실제 상담 전문가 자격 인정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상담협회의 경우 95년 현재 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전 회원의 10%미만인 400명 선으로 나타나고 있다(BAC, 1995a). 상담심리학 분과에서도 심리학회가 인정하는 자격 요건을 1986년부터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Noyes, 1989) 분과 회원 중 이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전 회원의 10%에 해당

하는 100여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실태로 볼 때 영국의 상담 전문가 자격제도는 아직 전문가 집단이나 일반 대중, 그리고 법적으로도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많은 상담 관련 인사들은 이 자격제도가 상담의 전문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거나 (28%) 중요하다고 반응하고 있고(31%) (BAC, 1993) EC가입 유럽 국가 사이에서는 전문 상담가로 개업할 수 있는 공통 자격 제도를 추진하고 있어(Deurzen-Smith, 1992) 앞으로 이러한 자격 제도는 상담의 전문화나 취업면에서 중요한 조건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현재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담 전문가 자격과 관련된 몇가지 기준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국 상담 협회의 전문가 자격 인정 제도는 1983년에 도입되어 1987년과 1994년의 두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문가로서의 자격 인정을 위해 협회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은 기초 교육 과정, 경험, 지도 감독, 실습 평가, 이론적 이해, 지속적인 발달 등으로 일부 전문가 집단에서 자격 인정을 위해 요구하는 학위나 연구 능력은 고려하지 않는다(Frankland, 1995).

전문가 자격을 위한 기초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인정 받을수 있는데 첫째, 상담협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훈련을 이수한 경우, 둘째, 강좌 중심의 덜 공식적인 기관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공식적인 지도 감독하에 최소 1년에 150회의 실습을 최소 7년간 한 경험이 인정되는 경우 셋째, 약간의 공식적인 훈련을 받고 공식적인 지도감독하에 최소 1년에 150회의 실습을 최소 7년간 한 경험이 인정될 때 75 훈련 시간을 한 단위로

계산하고 1년의 지도 감독을 한 단위로 계산하여 총 단위가 10이 넘는 경우이다. 이러한 세 가지 경로를 통한 기초 과정 모두는 최소 3년에 걸쳐 450시간의 지도 감독을 요하며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발달에 헌신한다는 증거로 보다 고급 수준에 훈련에 참여한다거나 교육 지도 과정의 일환으로서 내담자로서 상담에 참여하는 경험 등이 요구된다. 또한 전문가 자격 심사를 위한 유예 기간 동안 상담 협회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훈련, 경험, 실습이 통합된 상담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최소 한가지 이상의 이론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외에 상담 협회의 상담가를 위한 윤리와 실천 강령을 준수해야 하고 이에 입각한 두개의 사례를 전문가 자격 신청시 제시하여야 한다. 이 모든 조건이 부합될 때 상담 협회에서 인정하는 상담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심리학회 산하 상담심리학 분과에서 제시하는 전문가 자격 조건은 상담협회의 기준과 유사하나 학부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정하고 상담 협회에서 고려하지 않는 연구 능력이나 내담자로서의 개인 상담 경험을 필수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이론과 경험 면에서 좀더 전문적인 기준을 요구한다.

상담 전문가 자격과 비교하여 영국내 심리치료 분야에서 가장 전통을 지닌 정신 분석 치료를 위한 자격 인정 과정을 보면 영국 내에서 이 분야의 전문가 되기 위한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 싶다.

우선 전문가 자격 훈련을 위한 입학 조건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즉 의학, 심리학, 사회 과학이나 관련 분야에 학위가 있어야 하고, 정신

과 환자를 다룬 약간의 경험과 전문적인 훈련 기관에 입학하기 전에 심리 치료 협회에서 인정한 치료가로부터 최소 1년간 치료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 전문 치료가로부터 개인적인 자질 면에서 분석적인 치료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동의서는 선발시 중요한 자료로 채택된다. 전문가 훈련은 대부분의 훈련생이 직업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타트 타임으로 저녁에 실시되며 개인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4년 내지 5년의 시간을 요한다. 훈련은 강의와 세미나 형태로 진행되며 마지막 전문가 자격을 위해서는 7000자로 된 환자의 치료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훈련에 드는 비용은 첫해부터 3년까지는 매년 약 1,000파운드 수준이나 4년차부터는 약 반 정도로 학비가 감소한다.

이상과 같이 영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은 매우 길고도 어렵다. 그러나 이 과정들은 기초 과정을 포함하여 지도감독이나 이후 고급 수준의 훈련이 대부분 파트 타임으로 제공되어 있어 현업을 계속해 나가면서도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습득을 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은 전문 상담가로서의 먼 길을 가려는 지원자들에게 경제적인 면에서나 진로 개발면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도감독하에 이루어지는 현장에서의 상담 경험과 내담자로서의 상담 경험을 강조하는 부분은 이들이 생각하는 상담의 본질이 이론적인 연구보다는 경험과 반성을 통해 체득될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며 예술이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 상담 장면 및 활동 영역

영국내 상담 인력들이 어떠한 장면에서 주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상담 협회 회원의 소속 기관을 보면 어느 정도 이러한 현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의 주요 작업 현장은 상담 센터(47%), 교육 장면(24%), 개인 개업(10%), 전화 상담(8%), 병원 장면(5%), 지역 관청(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BAC, 1993). 이 자료에 근거해 주요 장면별 상담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상담센터

먼저 상담 및 심리치료 자원 명부(BAC, 1995a)에 기재되어 있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상담 센터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성격을 띠고 있다. 첫째,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단체로서 이들은 각 단체가 표방하는 이론적 접근에 따른 상담을 제공하며 이 기관에 근무하는 상담가 역시 각 이론 분야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거나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다.

현재 모두 26개의 단체가 이러한 성격을 띠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들리언 상담 센터, 인본주의 협회, 정신분석 심리 협회, 성과 결혼 치료 협회, 게슈탈트 센터, 가족 치료, 최면요법 협회, 현실 치료 협회 등이다. 이들은 보통 전문적인 상담 이외에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도 제공하며 중앙 본부를 기점으로



로 지역별 지점을 갖고 있다. 각 센터의 상담료는 기관에 따라 다르나 대강 15파운드에서 50파운드 사이이며 이 단체가 전국 의료 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보다 특수한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단체로 예를 들면 소수 인종을 위한 상담, 임신과 피임 관련 상담, 위기 중재, 종교, 음주, 암 관련 질병 상담 단체들이다. 이 기관에서 상담을 제공하는 상담가는 기초적인 상담 기술 이외에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훈련을 필요로 한다. 총 14개의 단체가 이와 관련된 활동을 제공하고 있고 이 단체들도 경우에 따라 실비의 상담료나 전문적인 단체의 상담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자선 단체의 성격을 띠거나 자원 봉사자들에 의해 상담이 제공되는 단체이다. 여기에는 모두 12개의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과부와 그 아동을 위한 상담이나 실종자 가족을 위한 상담, 성전환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담, 자살 방지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마리탄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보통 응급 라인을 전국에 설치하며 급박한 위기사 전화를 이용하여 상담할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단체는 자선 기금이나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고 자원 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므로 상담료는 거의 받지 않는다.

이러한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단체 이외에도 영국에는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많은 상담 관련 단체들이 있다. 이러한 예로 런던의 동남쪽 지역은 주로 벵갈지방이나

파키스탄, 아프리카에서 온 영국 내 소수 인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상담가가 상주하여 자녀 교육이나 취업, 생활 적응과 같은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고, 프로이드의 무덤과 박물관이 있는 런던 북부의 유대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기관이 있다.

영국에는 아직 한국인을 위한 상담 센터는 없지만 런던 남쪽 뉴몰덴(New Malden)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한국인이 살고 있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인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 기업의 영국 진출 및 유학생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앞으로 이들 자녀의 교육 문제나 교민들의 문화적 차이, 언어 등에서 비롯되는 생활상의 갈등을 해결하도록 돕는 한국인 전문 상담가나 단체의 양성이 요구되어진다고 생각한다.

## 2. 교육 기관

영국 상담의 실제적인 출발지이며 이론적 바탕 및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학교 장면이다. 이러한 학교 장면에서의 상담 활동은 크게 초·중등학교와 대학 이상의 고등 교육 장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영국의 학교 장면에서 정서적인 영역을 주로 다루는 상담 이전에 오랜 전통을 가진 이 분야의 활동 중 하나는 진로 지도와 관련된 것이다. 1989년을 기점으로 영국의 대학 진학율이 15%미만에서 현재 30%까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The Economist, 1995) 대부분의 영국 청소년은 만 16세가 되

면 학교를 떠나 직장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중등학교 장면에서 이들에 대한 진로 안내 및 지도와 성인으로서의 사회 생활을 위한 전반적인 예비 교육은 이미 상당히 체계화 되어 있고 전통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국의 초, 중등학교에 전문 카운슬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며 지역 교육 구청이나 관할별로 필요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전문 상담가를 비상주 형태로 고용하고 있다. 영국의 학교 장면에서 상담가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로는 학습 곤란 아동을 위한 교육심리학자나 우리나라의 도덕이나 윤리 과목과 유사한 개인과 사회교육(PSE: Personal and Social Education)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우리나라의 교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수석 교사(Head Teacher)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전문 상담가로서 보다는 다양한 상담 기술을 각자의 영역에서 활용하는 인력으로서 대부분의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 대학이나 사범 대학의 교과 과정에는 학생 지도와 상담을 위한 과정이 필수로 개설되어 있고 현직 교사 교육에도 의사소통 기술로서의 상담 기술 관련 과목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Huges, 1989: Mclaughlin, 1993).

한편 대학 이상의 고등 교육 장면에서 전문 상담가가 배치된 것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로 이는 학교 직원들과 학생 단체들의 압력에서 비롯된 것이다(Ratigan, 1989). 현재 이들은 대부분 학교 소속 건강 센터에 소속 되어 있어 학생들의 심리적인 문제 및 학업과 관련된 갈등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고 학교 교수진이나 행정가, 기숙사 직원들에게 자문과 훈련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학생과 교직원이나 이들과 관련된 정책을 만드는 입안자들간에 적절한 중재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학교 상담가들이 담당하고 있는 주요 기증 중의 하나이다.

대학 장면에 상담과 관련된 또 다른 인력은 상담에 관한 이론적 연구나 전문적인 상담 인력을 길러내는 학과나 연구소 소속의 교수진이다.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과는 주로 교육학이나 심리학과이고 다양한 형태의 연구소, 가령 응용 사회과학 연구소나 사회 사업 연구소, 인간 기술 개발 연구소, 평생 교육 기관 같은 곳도 상담 인력이 포진해 있는 곳이다.

고등 교육 기관에서 행해지는 상담 관련 활동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개방 대학(Open university)에서 발간되는 상담 관련 서적 및 BBC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개방 대학의 상담 관련 프로그램이다. 영국은 평생 교육의 개념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의 하나로 실제 대학 입학 적령기인 18세나 19세에 대학은 진학하는 비율은 미국(38%)이나 같은 유럽 국가인 독일(33%)에 비해 낮은 반면(영국 25%)(The Economist, 1995)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은 상당히 다양하고 내용면에서도 충실하다. 개방대학에서 제공하는 강좌 중 상담 관련 과목은 매우 인기 있는 과목의 하나로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상담 기술의 훈련은 특히 장년층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인정 받고 있다(Ratigan, 1989).

이상과 같은 다양한 교육 장면에서 행해지는 상담은 실제적인 상담 기술 훈련 및 상담의 기본 지침과 이론적 바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많은 분야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장면이라 생각된다.

### 3. 시설 개업

시설 개업 장면에서만 보면 영국의 상담과 심리치료는 본질적으로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영국내의 시설 개업을 하고 있는 상담가나 심리치료가는 대략 2,000명 수준으로 이들은 개인이나 집단으로 클리닉을 열고 있거나 단체, 혹은 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파트 타임 형식으로 개업을 하고 있다.

영국의 시설 개업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대도시나 중산층 이상의 거주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편이다. 단편적인 예로 런던에서 개업하고 있는 상담가의 수는 전체 개업가의 사분의 일에 해당하는 500여명 수준이고, 시설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상담료를 전적으로 내담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산층 이상이 주로 거주하는 런던 서부 지역의 상담자가 수(전체의 53%)가 주로 육체 노동자나 소수 인종이 모여 사는 동부 지역(전체의 21%)에 비해 두배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설 개업가는 자신의 훈련 및 교육 경험,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이나 이론적 지향들을 명시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담 영역이나 특수 사항들을 밝히고 있다(BAC, 1995a). 이러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제공하는 주요 상담 영역은 스트레스, 인간 관계, 사별이나 상실, 고독, 우울 불안과 같은 일반적인 주제 이외에 대상면에서는 아동이나 여성, 동성애자, 소수 인종 등을 전문으로 하거나 내용면에서 섭식과 관련된 장애, 성적인 학대, 난민으로서의 적응, 종교나 인종으로 인한 갈등 등 특수한 영역들도 포함하고 있다.

시설 개업가들의 상담 빈도 및 지속 시간, 총 회기 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로 상담 협회 소속 시설 개업가들의 이러한 경향을 보면(BAC, 1993) 이들의 평균 회기 길이는 1.04시간으로 월별 사례수는 매우 다양하나 20회 정도가 가장 많았고, 전체 회기는 6회기와 11에서 25회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집단 상담의 경우는 평균 회기 지속 시간이 1.7시간으로 보통 주당 한번 내지 두번의 모임을 갖으며 평균적인 총 회기는 11.8회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이 받고 있는 상담비는 대략 15파운드에서 60파운드 수준이며 내담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회기수에 따라 협상이 가능하다.

이러한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영국에서도 25회 미만의 단기 상담이 주를 이루며 아직 대부분의 개업가는 개인적인 상담만으로 클리닉을 운영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 McMahon과 Powell이 조언한 대로(1993) 영국에서도 시설 개업 기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개업가들은 지도 감독이나 워십, 상담 기술 훈련 등 상담과 관련된 주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내담자 유치 및 시설 장면의 특징에서 비롯되는 개인적인 고립과 정보 차단 현상 등을 극복하고 있다.

영국내에서도 시설 개업가에 대한 전문적, 법적인 자격과 관련된 문제, 시설 개업가와 내담자와의 빈번한 성적 관계 등(Pilgrim, 1993)이 시설 개업과 관련된 부정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나 현재 영국 내에서 전국 의료 서비스(NHS)에 소속되어 있는 병원이나 기관에서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받기는 거의 힘든

반면 사회 각 영역에서 상담과 심리치료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상담 전문가의 사설 개업은 늘어날 추세이다(Sherrad, 1993).

#### 4. 의료와 직장 영역

상담협회의 하위 분과를 이루어 있으면서 앞으로 많은 활동이 기대되는 장면은 병원을 비롯한 의료 장면과 산업체를 포함한 다양한 일터에서의 상담 활동이다. 이 두 분야는 아직 상담 활동을 위한 많은 길이 열려져 있지 않지만 상담과 관련된 자문이나 기술 훈련을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담 인력이 진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무대이다.

영국에서 상담가가 의료장면에 직접 개입되는 경우는 전국 건강 서비스에 등록된 지역 건강 센터에서 상담 및 심리 치료 전문가로 일하거나 일반 개업의와 협동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로 현재 개업의들과 가장 많이 손잡고 일하고 있는 부분은 가족 치료이다. 가족 치료 영역은 의료 장면과는 별도로 상담협회의 한 분과를 이루고 있으면서 숫적으로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Smith, Irving and Brown, 1989).

의료 장면에서 이러한 직접적인 개입 이외에 기대되는 또 다른 역할은 자문이나 훈련, 교육과 관련된 역할이다. 일반적으로 약물이나 물리적 처치 이외에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와 맺는 관계의 질이나 처방을 전달하는 방법 등은 환자의 효과적인 치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관계 형성이나 의사 전달 방법 등은 상담에서 주로 다루고 가르치

는 영역이므로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이 분야에 대한 자문은 전문 상담가가 제공해야 할 새로운 역할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AIDS/HIV에 대한 예방 교육의 붐이 일면서 건강 교육 측면에서 이러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교육 프로그램에서 집단 상담이나 지도 원리를 이용한 프로그램은 그 시행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ones, 1992; Redman, 1987).

Smith 등(1989)이 지적한 대로 의료 장면은 그 우선 순위가 새로운 치료 방법을 도입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고가의 장비 구입에 있으므로 상담과 같은 서비스 활동은 상대적으로 점진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질적인 인간의 치유 과정은 대화를 통한 상담 만으로나 혹은 의학적인 기술만 가지고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점에서 두 분야간의 협동은 총체적인 치료의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영국내에서 아직 상담 인력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많은 가능성을 가진 또 하나의 장면은 산업체를 포함한 다양한 일터이다. 영국에서 직장내에 상담 서비스가 최초로 실시된 것은 1974년 쉘 화학회사(Shell Chemical)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Megranahan, 1989). 이 활동은 후에 직장에서의 여러 스트레스를 연구하는 동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를 시발로 현재 회사내에 전문 상담가를 두고 있는 곳은 신문사인 타임즈

(Times Newspapers), 석유 회사인 셸 인터 내셔널, 일부 병원과 경찰국 등이다.

직장내에서 종업원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실시된 것은 1981년 부터인데 이 프로그램들은 이미 미국의 많은 회사에서 종업원들의 복지 및 작업 효과면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된 것 들이다. 영국에서는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회사를 중심으로 종업원 조력 프로그램(EAP:Employee Assitance Programmes)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음주 문제를 가진 종업원 및 그 가족에게 즉각적인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제공하여 개인의 치료는 물론 작업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방지하는데 있다. 영국에서 실시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는 아직 보고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성격의 먼 상담 프로그램은 매년 노동 조합에 의해 적극적으로 채택되고 건의 되는 것 중의 하나이다.

작업장에서 상담과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는 또 하나의 계층은 조직의 관리나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영진 등이다. 경영진들에 대한 자문과 훈련은 종업원들의 복지 시설로써 공식적인 상담 제도나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더러 이들이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의사소통이나 면접 기술, 혹은 종업원들의 수행을 평가할 수 있는 관찰 기술 등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 상담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 분야이다. 이러한 역할은 현재 영국에서도 상담이나 심리학보다는 경영학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지만 상담협회의 한 분과로 설립된 직장 상담 협회(Association for

Counselling at Work)에서는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상담가들이 이러한 작업 장면에 뛰어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Megranahan, 1989)

## 총 합

지금까지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 관련 활동을 주로 실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이러한 개관은 주로 문헌과 제한된 인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영국의 실제 상담 현장을 심층적으로 소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상적인 개관이나마 이러한 고찰을 통해 나타난 영국 상담의 주요 경향을 요약해 보고 이러한 경향들이 앞으로의 상담 활동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영국의 상담 발달 단계는 아직 실천이나 이론 면에서 확고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기 보다는 그 정체를 찾아가는 단계라고 보는 편이 적절한 것 같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영국에서 상담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30년이 채 안된다. 여기에다 기본 정서면에서 상담이라는 용어나 그 주요 개념이 미국 문화의 산물이라는 데에 대한 일종의 거부감, 독립심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앵글로 색슨계의 문화적 전통(Ratigan, 1989), 영국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서 비롯되는 카운슬러의 고용 기회 감소, 상담과 유사한 기능을 해 온 심리치료나 학교 장면에서의 지도 활동 등으로 아직 상담 나름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나가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상담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학자나 실천가, 그리고 자원봉사의 차원에서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많은 인력은 상담의 본질적 기능, 즉 대인 관계를 통해 인생 주기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과정이라는 데에 보다 초점을 두므로써 서로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근간으로 상담의 폭이나 깊이를 넓히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모습은 본래 실천으로써나 이론으로서의 상담의 기반이 어느 한 분야에 특정되어 있기보다는 상당히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지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국의 상담계는 전문적인 수준이나 일상적인 수준에서 상담의 정체를 찾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실천가로서의 상담 훈련을 원하는 자원자들에게 영국은 비교적 다양하면서도 깊이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앞에서 서술한 전통있고 다양한 심리 치료 훈련 기관의 영향도 있지만 평생 교육 차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현직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파트타임 형식의 교육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담과 같이 전문적인 지식 이외에도 개인의 경험이나 성숙 수준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분야에서는 영국과 같은 보다 융통성 있는 시스템이 효율적인 상담가를 길러내는 훈련 모델로써 고려될 수 있을 것 같다.

셋째, 상담의 정체와 맞물려 영국의 상담가는 심리치료가에 비해 아직 전문적인 인정이나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아직 상담 관련 단체간에도 상담 전문가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없으며 법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영국내에서 연구 과정으로 상담 전공의 박사 학위 과정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실천과 연구의 측면에서 상담의 전문화와 관련된 주제는 영국 상담계가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다.

끝으로 영국에서 상담이 시행되는 장면은 학교나 상담 단체를 넘어서 사설 개업이나 의료 장면, 직장 영역으로 확대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영역의 확대는 심리 교육의 측면에서 자문이나 훈련, 교육등의 기능이 강조된 상담의 역할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상담이 지향해야 할 한 방향을 제시하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진다.

## 참 고 문 헌

- BAC(1989), Membership Survey of The British Association for Counselling : Initial Analysis, *Counselling*, No. 68, pp. 9-14
- BAC(1993), Membership Survey 1993, *Counselling*, Vol. 4, No. 4, pp. 243-244
- BAC(1995a), *Counselling & Psychotherapy Resources Directoy*, Warwickshire : British Association for Counselling
- BAC(1995b), *Training in Counselling & Psychotherapy Directory(11Ed.)*, Warwickshire : British Association for

## Counselling

- BPS(1980), *Counselling : The Report of a Working Party*, Leister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 BPS(1994), *The Register of Chartered Psychologists*, Leister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 British Association of Psychotherapists, *BAP : Training Prospectus*
- Bolger, T.(1989), Research and evaluation in counselling, in W. Dryden, D. Charles-Edwards and Ray Woolfe(Ed.), *Handbook of Counselling in Britain*, London : A Tavistock/Routledge publication
- Charles-Edwards, D. Dryden W., & Woolfe R.(1989), Professional issues in counselling, in W. Dryden, D. Charles-Edwards and Ray Woolfe (Ed.), *Handbook of Counselling in Britain*, London : A Tavistock/Routledge publication
- Deurzen-Smith, E. (1992), Counselling Psychology and Europe, *Counselling Psychology Review*, Vol. 7, No.2, pp. 5-9
- Dryden, W.(1991), *Dryden-on Counselling : Volume 3. Training and Supervision*, London : Whurr Publishers
- Frankland, A. (1995), An Invitation to Accreditation-Steps Towards an Emerging Profession, *Counselling*, Vol. 6, No. 1, pp. 55-60
- Hughes, P.(1989), Counselling in education(primary and secondary),in W. Dryden, D. Charles-Edwards and Ray Woolfe(Ed.), *Handbook of Counselling in Britain*, London : A Tavistock/Routledge publication
- Jones, M.(1992), Training pupils to promote HIV/AIDS education, *Education and Health*, Vol.10, No.4, pp.49-53
- Klinefelter, P.(1994), A School Counselling Service, *Counselling*, Vol.5, No.3, pp. 215-217
- McMahon, G. & Powell, K.(1993), Starting your own private practice, in W. Dryden, D. Charles-Edwards and Ray Woolfe(Ed.), *Handbook of Counselling in Britain*, London : A Tavistock/Routledge publication
- Megranahan, M.(1989), Counselling in the workplace, in W. Dryden, D. Charles-Edwards and Ray Woolfe (Ed.), *Handbook of Counselling in Britain*, London : A Tavistock/Routledge publication
- Noyes, E.(1989), A Survey of Counselling Training Courses on Their Comparison with the Recommendations for Standards made by the British Association for Counselling and the Counselling Section of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Counselling Psychology Review*, Vol. 4, No.2, pp. 16-23

- Pilgrim, D. (1993), Objections to private practices, in W. Dryden, D. Charles-Edwards and Ray Woolfe(Ed.), *Handbook of Counselling in Britain*, London : A Tavistock/Routledge publication
- Proctor, B. (1993), An Overview of Counselling in Britain Today, in K. Bovair & C. Mclaughlin(Ed), *Counselling in Schools-a Reader*, London : David Fulton Publishers Ltd.
- Ratigan, B. (1989), Counselling in higher education, in W. Dryden, D. Charles-Edwards and Ray Woolfe(Ed.), *Handbook of Counselling in Britain*, London : A Tavistock/Routledge publication
- Redman, J. (1987), Aids and peer teaching, *Health Education Journal*, Vol. 46, No. 3, pp. 150-151
- Sherrad, C. (1993), The rise in demand for counselling,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Vol.6, No.1, pp. 53-57
- Smith , A. A., Irving J. & Brown (1989), Counselling in the medical context, in W. Dryden, D. Charles-Edwards and Ray Woolfe(Ed.), *Handbook of Counselling in Britain*, London : A Tavistock/Routledge publication
- The Economist(1995), Higher education : Degree of Freedom, Vol. 335, No. 7911, *The Economist*, pp. 34-36
- Thorne, B. (1995), Guidance and Counselling in Futher and Higher Education,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Vol. 13, No. 1, pp.22-34
- Wilson, J.(1995), Current Trends in Counselling Psychology, *Counselling Psychology Review*, Vol. 12, No. 12, pp. 5-12
- Woolfe, R., (1990), Counselling Psychology in Britain : An Idea Whose Time Has Come, *The Psychologist*, Vol.13, No. 12, pp. 531-535
- Woolfe, R., Dryden, W., & Charles-Edwards D.(1989), The nature and range of counselling practice, in W. Dryden, D. Charles-Edwards and Ray Woolfe(Ed.), *Handbook of Counselling in Britain*, London : A Tavistock/Routledge publication



## Counselling Activities focused on Practitioners in Britain

**Kwang-Un Kim**

Korea Air Force Academy

The present study was to introduce counselling activities focused on practitioners in Britain. The investigation covered four areas : developmental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counselling, the courses and institutions for counsellor training, the standard for professional counsellor and main counselling setting in Britain. The first section discussed historical relation between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and associations which represent counselling and counselling psychology each. The second section introduced general counselling courses in terms of introductory, advanced and professional and the Recognized Counsellor Training Courses by BAC(British Association for Counselling). The third section introduce the criteria for BAC and BPS(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Accreditation. The last section introduced main counselling setting: counselling center, education, private practice, medical and work areas.